

전북자치도 · 한국은행, 양 기관 협력 강화

김관영 도지사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마주 앉아 다방면 논의 “금융생태계 활성화 등 위해 긴밀한 교류 협력 강화” 한목소리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은행이 지역 경제 상황을 공유하며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28일 오후 3시 전북자치도청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과 각 지역본부의 역할이 최근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경제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북본부와 전북자치도 간 소통을 강화해서 더 나은 지역발전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그동안 도와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



28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며, 지역경제 정책 수립에 있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또, “민생경제 부흥을 위해 경제 전 분야의 다양한 지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 라는

공감대를 통해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한국은행과 전북자치도 간 다리가 놓이게 기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의 ‘금융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과 전북자치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계속되는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운 도내 기업의 자금 상황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자금의 규모 확대와 기간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와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도내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경제상황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회의에 참여하는 등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북지역경제 통계, 조사 연구 데이터 등의 양 기관 간 활발한 공유와 금융교육 공동 추진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본부의 매달 또는 분기별 지역경제 동향 등의 발표자료들을 도 간부회의, 포럼 등 회의체에서 브리핑하는 등의 방안과 전북경제 교육센터 운영 교육의 내실화와 효율적 측면의 보안을 위해 대학생 강사교육과 감사파견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본부장이 전북 지역경제협의회(전주상공회의소), 전북 금융산업발전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왔으며, 향후 전북물가대책위원회에도 참여해 지방공공요금 사전 심의 등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충남 논산 출생으로 2022년 4월부터 한국은행 총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1만호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8~29일 양일간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2024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워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워크 개최

중기청, 혁신스타트업들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협업 제공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28일~29일 양일간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2024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워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투자감소 등 위축된 지역의 창업생태계 속에서 혁신성을 갖춘 유망 스타트업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스타트업 교류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5개 지원기관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 창업지원사업인 창업중심대학사업과 창업패키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혁신 스타트업 100여개사가 참여한다.

당일 개막식 행사에서는 참여 기업과 기관들의 스타트업 성장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포함한 스타트업 패키지 워크 선포식을 시작으로, 스타트업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성장단계별 맞춤형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가치투자 및 스케일업 전략 수립 특강을 실시하며, 지역 스타트업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스타트업 Meet-Up &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특히, 스타트업 Meet-Up & 네트워킹에서는 지역의 혁신 스타트업들이 예비창업부터 초기, 도약, 성장에 이르기까지 창업성장단계별 기업들이 참여하는 ‘로컬 혁신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농촌진흥청, 한우 암소 200마리 방목

강원 평창 소재 한우연구소 내 초지서 10월 말까지 생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강원도 평창)는 28일, 한우 암소 200여 마리를 대관령 초지에 방목했다.

한우연구소는 국내 한우산업 발전의 중심축인 한우 육종 번식, 사양 등 관련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크게 계통축, 기초축, 시험축 3가지 축군(가축 무리)으로 구분해 한우 약 1,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계통축은 특정 보증번호를 부여한 출림 현상으로 근교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국가단위한우개량사업으로 선발한 보증번호(가축번호)를 사용하여 선발한 씨수소와 암소 300마리를 교배해 조성한 축군이다. 한우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육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강원도 평창)는 28일, 한우 암소 200여 마리를 대관령 초지에 방목했다.

하는 단일 축종인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마다 자체 선발한 씨수소와 암소 300마리를 교배해 계통축을 조성하고 있다. 기초축과 시험축은 보증번호 수

(KPN) 정액으로 조성한 축군이다. 기초축은 암소 개량 연구 시험축은 한우 번식 및 사양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다.

이날 방목한 한우 암소 200여 마리는 임신하지 않았거나 젖을 떤 암소다. 보통 5월 말이나 6월 초 방목해 약 5개월간 초지에서 자라다가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10월 말경, 축사로 돌아간다.

한우연구소 내 방목초지는 총 14개 구역 약 180헥타르에 달한다. 방목 한우 암소는 한 구역에 7~10일씩 머무르면서 하루 약 60~70kg(암소 500kg 기준) 풀을 뜯는다.

방목 한우 암소는 적절한 운동과 일광욕 효과 덕분에 번식 장애가 줄어들어 사육일 때보다 번식률이 15% 이상 높다. /김욱기 기자



전북지방환경청은 28일 전북지역 지자체 환경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청, 지자체 환경 부서장 간담회 개최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28일 전북지역 지자체 환경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지방간 협업 시안을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 환경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중앙-지자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전북지방환경청은 수돗물 유출 발생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을 안내하고 국고보조금 조기 집행, 지역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활성화 등 중앙-지방간 협력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지자체에서는 지역 환경 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욱기 기자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산골영화제, ‘어린이 가족 밤 숲 체험’ 진행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후원사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밤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무주산골영화제 기간 중 6월 7일과 8일 저녁 리조트 내 조각공원에서 진행되는 밤 숲 체험은 어린이를 동반한 무주덕유산리조트 투숙객을 대상으

로 엄마, 아빠, 아이가 함께 자연을 탐색하고 숲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즐거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6월 7일에는 엄마, 아빠와 반딧불 밤 숲 음악회, 6월 8일에는 엄마, 아빠와 밤 숲 댄스파티를 주제로 저녁 8시 30분부터 어두운 밤하늘 아래 숲 속에서 연주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창의

적인 활동을 통해 온 몸으로 자연과 예술을 체험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밤 숲 체험 프로그램 참여는 오는 6월 2일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농협, 쌀 적정생산 및 수급안정 결의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난 27일 농협전북본부에서 농협 비 전북협의회(회장 백낙진 금마농협조합장) 회원 조합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쌀 적정 생산 추진 및 수급안정 결의의 대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전북협의회 사업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 승인 △신규 회원 가입 및 탈퇴 등을 승인하였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 최재용 국장과 농협경제지주 양곡사업부 방철환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쌀 가격 하락과 농협의 비재고과다 보유로 인한 시장 격리 방안 마련 등 애로 사항 수렴 및 쌀 적정생산 추진 정부 정책 방향 쌀 산업 발전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영일 본부장은 “전라작물직물제,



전북농협은 지난 27일 농협전북본부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쌀 적정생산 추진 및 수급안정 결의의 대회를 가졌다.

는 타작물 재배 등 쌀 적정생산 추진을 통해 쌀 가격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낙진 협의회장은 “계속되는 쌀 값 하락으로 농업인과 수매량이 많은 농협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